

현장시선



고 상 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내년 '주52시간 근무제'의 종업원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확대시행이 경제·사회분야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현장에 정착육할 방안을 고찰하는 등 노동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자.

'주52시간 근무제'는 삶의 여유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동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작했다. 기존의 주68시간 근무제는 평일 40시간에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포함된 것이었으나, 변경된 '주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근로(16시간)가 연장근로(12시간)에 귀속된다.

중소기업과 근로자 상생의 노동정책

그렇지만, 주52시간 확대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은 부작용을 우려한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1%나 인상하고 주휴수당을 법제화 해 영세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힘들어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인원은 21만 명, 인력부족률은 2.2%로 대기업 대비 2.4배로 만성적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주52시간 근무제'까지 실시될 경우, 인건비 상승, 납기준수 불가, 인력부족 심화 등 현장부작용이 속출해 근로시간 관련 노사분쟁까지 감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염색' 업종의 경우 3D업종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12~18시간 기계작동에 맞춰 잤은 인력 교대 시 생산성 하락이 우려되고, '중소기계 설비'업계의 경우, 주야간 특근 업무로 급여수준이 높은 직원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감소가 걱정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최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감귤출하 집중시기에 근로자가 활용이 집중되나 대부분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이 돼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국회에 건의를 한 바가 있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2시간에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도 박하다. '저녁이 있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선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업종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근로자 입장에서선 36시간 미만 파트 타임 근로자를 비롯해 편의점 알바 등 부업을 뛰는 직장인이 증가해 고용의 질이나 안정성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11월 18일 발표한 '주52시간 시행대책'은 내년도 확대시행에 따른 1년 이상의 계도기간 부여(기존 300인 이상엔 9개월 부여), '특별인가 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 아쉽지만 중소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위 대책과 관련해 제안한 탄력근로제의 단위가 확대(3개월→6개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보장),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3개월), 탄력근로제 및 특별인가 연장근로 시행 등에 따른 영세기업의 행정적 부담완화조치가 반영되길 기대한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 시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임금 조사 등 기초자료 확보도 필요하다.

이런 개선방안들이 종합적으로 실천될 때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노동정책의 변화가 충격이 아닌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침체된 우리경제에도 활력이 불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열린마당

제주 동의보감 전시회를 마치며



이 향 영
제주한의약연구원

지난 11월 7일 동의보감 연합 전시회가 막을 내렸다. 8월 3일 제3회 제주한방문화축제와 함께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2019년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10주년 기념으로 한국한의약연구원 동의보감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세계자연문화유산인 제주도와 세계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의 첫 만남으로 화제가 된 이번 전시회는 동의보감 조선판, 목판, 영인본 전시와 함께 유네스코 등재 문서 등을 소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학서 동의보감을 제주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제주가 낳은 사랑의 명의故진태준 한의사의 자료와 생애 진료에 쓰였던 유품들을 선보이며, 제주 속 한의학 전통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한의사故진태준(1925~2015)은 제주시한경면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한의사가 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40여년간 인술을 베풀었다. 그는 1974년에 자신의 호를 딴 '동연장학회'를 설립하여 매년 불우한 의학과 및 한의학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었고 이러한 공로로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훈장 등을 받았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제주한방문화축제는 제주도에 많은 기관들의 후원에 힘입어 성대히 치러졌다. 축제는 한의학 특강으로 출발해 '감귤 건강향 만들기', '우리가족을 위한 동의보감 만들기', '약초 미니화분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즐겁고 다채로운 행사들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제주에서 한의학을 알리고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강창일 의원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어”

총선 불출마 시사 보도 해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국회의원이 2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는 한 언론보도로 도민 사회가 들썩.

강 의원은 이날 모 언론사와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 전화 인터뷰를 하던 중 내년 총선 출마 여부 관련 질문에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고민 중이다. 한 달 정도 더 지역주민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답변.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즉각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해명.

부미현기자

진드기감염병 관리 최우수

○…제주도가 2019년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21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차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시·도와 지자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결

과를 평가했는데, 우수사례와 실적 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가장 뛰어난 기관으로 인정.

이번 표창은 예방사업 등에 대한 우수한 평가는 물론 감염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많지 않은 환자발생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내부평가도 주요, 조상윤기자

재선총병 소나무 통계 혼선

○…제7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 고사목 현황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시의 통계가 달라 혼선.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이뤄지는 제7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 제주시 관내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는 6만 2000본으로 제시했으나 제주시는 4만 5000본 정도로 분석.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가 그냥 고사한 소나무들까지 포함시켜 우리 통계보다 많게 나온 것”이라며 “현재 관내 재선충병 감염 고사 소나무는 4만5000본에서 5만본 정도”라고 언급. 고대로그기자

사설

수익 못내 위기에 처한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발전사업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정책과 전력공기업과의 거래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예상과 달리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큰 일입니다. 제주도에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한 도민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 가격 폭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 육지부 태양광발전 REC 평균가격은 4만원대입니다. REC는 재생에너지업계의 주가이자 화폐나 다름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주식 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가격(SMP)에 판매 수익을 얻습니다. 2017년 평균가격(12만8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급락한 것입니다.

반면 제주지역 태양광발전

REC 평균가격은 지난 10월 24일부터 0원으로 내려가면서 사실상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는 국내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확보한데다 육지부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해 공급량은 많고 수요량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나선 도민들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장려정책과 맞물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했던 태양광발전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받아서 투자한 소규모 사업자들은 걱정이 많아 아쉽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들어 도민들은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경인데 제주도가 앞으로 전력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우려됩니다.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보다도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철수 수순 밟는 관광공사 시내면세점

한때 황금알을 낳는다면 면세점 사업이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결국 철수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회룡 지사가 2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직접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원 지사는 제주관광공사 경영위기를 초래한 시내면세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경용 의원의 질의에 “지금 철수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철수가 현실화되면 인력 문제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2015년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6년 2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면세점을 열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북함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했으나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2017년 40억 5300만원, 2018년엔 41억21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도민혈세가 투입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적자는 사드 여파 등 대외 환경에도 있지만 내부적 요인도 큼니다. 면세점 사업 진출 당시부터 제주관광공사의 경영능력에 의문부호가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드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접근성 문제 등이 얹히면서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대기업들도 면세점 시장에서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흐름과 상황 등을 감안한 채 선불리 뛰어들어 결과가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 지사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도지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정치적 수사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엄중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이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중히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국산품
미국식품의약원 FDA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릉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건제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알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